

문왕팔괘도에 근거한 「장부론」의
기 흐름과 사상인의 청기(淸氣·淸汁)·
탁재(濁滓)에 관한 고찰
『동의수세보원』 「장부론」을 중심으로

임병학

충남대학교 철학과 강사, 철학 전공
phlim@daum.net

- I. 머리말
- II. 「장부론」의 사상적 구조
- III. 문왕팔괘도와 온기·열기·량기·한기의 기 흐름
- IV. 사상인의 청기(淸汁)와 탁재
- V. 맺음말

I. 머리말

『동의수세보원』 제1권의 마지막 장인 「장부론」은 그 명칭에서부터 의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무(東武)는 「장부론」을 제1권에 배치하여 자신의 사상철학을 바탕으로 인체에 대한 철학적·생리적 원리를 종합하고 있다.¹⁾

『동의수세보원』 제1권은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기 때문에²⁾ 「장부론」이 인체의 사상적(四象的) 구조와 생리적 작용(淸氣·濁滓)을 논하고 있지만, 철학적 사고에 의한 인간의 이해를 중심으로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주역』의 문왕팔괘도(文王八卦圖)에 근거하여 「장부론」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동무 자신이 문왕팔괘도를 통해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직접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³⁾

‘동무자주’로 불리는 『동무유고』 제3권 「성명론」에서 천기(天機) 유사(有四)를 직접 문왕팔괘도의 방위와 괘에 배치하여 설명하고 있으며⁴⁾, 『동의수세보원』 「사단론」에서는 폐비간신을 문왕팔괘도의 네 모퉁이에 배치하고 있다.⁵⁾ 또 『격치고』 「유략」에서는 문왕팔괘도에 인간 본성의 이치가 혼연하다고 하였다.⁶⁾

필자는 문왕팔괘도를 통해 『동의수세보원』 제1권을 일관하는 사상의

1) 황민우, 『사상의학 강설-병증편』(군자출판사, 2012), 33쪽 참조.

2) 인류가 발전시켜온 수많은 의학체계가 있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해명을 통해 인간의 생리적 생명까지 밝혀 의학체계를 세운 것은 四象醫學이 유일하다. 기존의 한의학이 인간과 자연환경이 하나의 통일된 整體라는 개념하에 오랜 의료 경험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연구를 진행하고, 전국시대 陰陽家에 연원한 陰陽五行學說을 이용하여 이것을 논증한 것이라면, 四象醫學은 先秦儒學에서 규정한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철학에 근거하여 자신만의 四象哲學을 완성하고 이것을 근거로 의학을 전개하는 ‘철학이 있는 의학’이라 하겠다.

3) 동무의 사상철학에서 文王八卦圖의 내용은 임병학의 「『周易』의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고찰」(『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5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d)과 「朱子の 『易學啓蒙』에 근거한 동무의 易學의 사유의 특성-『격치고』를 중심으로」(『한국문화』 제6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e)를 참조.

4) 『東武遺稿』, 제3권 「性命論」. “地方卽少陰兌上絕, 西方也. 人倫卽太陰坎中連, 北方也. [...] 世會, 卽少陽巽下絕, 東方也.(震下連) 天時, 卽太陽离虛中, 南方也.”

5)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6) 『格致彙』, 「儒略」, 天時. “盡其心者, 知其性, 盡其心者, 無窮用意也, 知其性者, 盡得性理也, 性理者, 文王易象, 渾然全備於吾之知覺中, 曰盡性.”

학의 철학적 원리를 밝히고자 「성명론」·「사단론」·「확충론」의 사상적 구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제1권 마지막 장인 「장부론」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장부론」에 대한 한국 철학계의 연구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장부론」을 의학적인 입장에서만 보았다는 것으로, 이 글은 「장부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

「장부론」의 전체 내용을 분석해보면,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폐비간신(肺脾肝腎)과 두견요둔(頭肩腰臀), 위완위소장대장(胃脘胃小腸大腸)과 함역제복(頤臆臍腹)의 위치를 상초·중상초·중하초·하초의 네 구역으로 나누고, 사부(四腑)를 중심으로 수곡의 기가 생성됨을 논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수곡의 온기(溫氣)·열기(熱氣)·량기(涼氣)·한기(寒氣)가 각각 폐당(肺黨)·비당(脾黨)·간당(肝黨)·신당(腎黨)에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논하고, 이목비구(耳目鼻口)·폐비간신의 청기와 탁재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또 결론은 이목비구·폐비간신·함역제복·두수요족(頭手腰足)의 사상적 구조를 종합·정리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장부론」은 「성명론」·「사단론」·「확충론」에서 논한 천인성명(天人性命)의 사상적 구조를 종합하여 인간의 생리적 작용을 밝혀, 사상철학이 의학으로 성립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부론」에서 사상인에 대한 논의보다 수곡의 온기·열기·량기·한기를 통해 인체의 기 흐름을 종합하고 있다.⁸⁾

이에 이 글에서는 문왕팔괘도에 근거한 「장부론」의 기 흐름과 사상인

7) 먼저 「성명론」에 대한 연구로는 임병학의 앞의 논문(2014d)이 있고, 「사단론」에 대한 연구로는 임병학의 「문왕팔괘도에 근거한 哀怒喜樂과 四象인 臟局의 大小 형성에 관한 고찰-『동의수세보원』 「사단론」을 중심으로-」(『동서철학연구』 제72호, 한국동서철학회, 2014b)와 「哀怒喜樂에 대한 心理·生理的 해석과 그 易學的 근거-『동의수세보원』 「사단론」을 중심으로-」(『영남학』 제25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c)가 있으며, 「확충론」에 대한 연구로는 임병학의 「문왕팔괘도에 근거한 『동의수세보원』 「확충론」의 哀怒喜樂과 天人性命 고찰」(『민족문화』 제44집, 한국고전번역원, 2014a)이 있다.

8) 「장부론」의 水穀의 溫氣·熱氣·涼氣·寒氣의 언급에서 水穀은 ‘氣液’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水穀과 氣液은 모두 인체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대상물에 해당되며, 水穀은 脾胃의 出納 기능을 통하여 대사가 이루어지고, 氣液은 肝肺의 呼吸 기능을 통하여 대사가 이루어져 인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神氣血精이 만들어지게 된다. 「臟腑論」에서 ‘水穀’은 ‘인체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대상물’로 해석하여 水穀과 氣液을 통칭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였음을 밝힌다. 황민우, 앞의 책, 41-42쪽 참조.

의 청기(청즙)·탁재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장부론」의 사상적 구조를 고찰하고, III장에서는 문왕팔괘도에 근거하여 수곡의 온기·열기·량기·한기의 기 흐름을 논하고, IV장에서는 사상인의 청기(청즙)와 탁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장부론」의 사상적 구조

『동의수세보원』 제1권의 총 결론에 해당되는 「장부론」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마음(心)이 네 모퉁이(肺脾肝腎)에서 사상으로 작용함을 논하고, 「성명론」 이후에 논의된 천인성명의 사상적 구조를 이목비구·폐비간신·함역제복·두수요족으로 밝히고 있다.

마음은 한 몸의 주재로서 네 모퉁이와 마음을 등에 지고 앞가슴의 중앙을 올바로 향하여 불빛처럼 밝게 빛나서, 이목비구는 살피지 못하는 것이 없고, 폐비간신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함역제복은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두수요족은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⁹⁾

「장부론」에서 논한 마음과 천인성명의 사상적 구조는 『동의수세보원』 제1권과 『격치고』를 일관하고 있는 사상철학의 학문적 체계에 근거한 것이다.

『격치고』에서는 『주역』 계사상편 제11장의 ‘역유태극(易有太極)’절¹⁰⁾을 인용하여, 태극은 심이고 그 작용인 사상은 사심신물(事心身物)로 논하고 있으며¹¹⁾, 「사단론」에서는 ‘오장의 마음은 중앙의 태극이고, 오장의 폐비간신은 네 모퉁이의 사상’¹²⁾이라 하여, 태극의 마음과 폐비간

9)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臆中, 光明瑩徹,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付, 頷臆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

10) 『周易』, 繫辭上, 제11장. “是故,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 生四象, 四象, 生八卦, 八卦, 定吉凶, 吉凶, 生大業.”

11) 『格致彙』, 「反誠箴」, 巽箴. “易曰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 生四象, 四象, 生八卦, 八卦, 定吉凶, 吉凶, 生大業,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12)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

신의 사상으로 논하고 있다.¹³⁾

또한 「성명론」에서는 천인성명의 사상적 구조를 기본으로 인간의 마음도 호선지심(好善之心)·오악지심(惡惡之心)·사심(邪心)·태심(怠心)의 사상심으로 논하고 있으며¹⁴⁾, 「사단론」에서는 희노애락(喜怒哀樂)과 애기(哀氣)·노기(怒氣)·희기(喜氣)·락기(樂氣)의 사상적 구조를 통해 직접적으로 사상인의 장국 대소의 형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확충론」에서는 「성명론」과 「사단론」이 논의한 천인성명과 애노희락의 사상적 구조를 제목 그대로 확충하고 있다.

「장부론」에서는 이러한 사상적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폐의 부위는 이마(顛) 아래, 등 위에 있고 위완의 부위는 턱 아래, 가슴 위에 있으므로 등 위와 가슴 위 이상을 상초라 하고, 비의 부위는 등에 있고 위의 부위는 흉격에 있으므로 등과 흉격의 사이를 중상초라 하고, 간의 부위는 허리에 있고 소장 부위는 배꼽에 있으므로 허리와 배꼽 사이를 중하초라 하고, 신의 부위는 허리 아래에 있고 대장의 부위는 배꼽 아래에 있으므로 허리 아래와 배꼽 아래 이하를 하초라 한다.¹⁵⁾

즉, 폐비간신과 위완·위·소장·대장을 중심으로 인체에 직접 결부시켜 상초·중상초·중하초·하초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폐비간신의 사장(四臟)이 개별적인 장을 넘어서 장국으로 인체의 부위가 됨을 알 수 있다.

또 “수곡이 위완으로부터 위에 들어가고 위로부터 소장에 들어가고 소장으로부터 대장으로 들어가고 대장에서부터 항문으로 나가는데, 수곡의 모든 수가 위에 머물러 쌓여서 혼중하여 열기가 되고 소장에서 소화되

13) 『격치고』의 事心身物 四象은 『동의수세보원』의 天人性命의 四象의 구조로 그대로 결부되고 있다. 먼저 「성명론」에서는 物四端인 志膽慮意을 性인 額臆臍腹과 결부시키고, 「장부론」에서는 心四端인 辯思問學은 직접 人事를 담지한 肺脾肝腎에, 身四端인 屈放收伸은 命인 頭手腰足(頭肩腰臀)에 직접 결부시키고 있다. 또 事四端인 貌言視聽은 天機를 담지한 耳目鼻口에 결부됨을 「독행편」에서 직접 밝히고 있다.

14)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人之耳目鼻口, 好善無雙也, 人之肺脾肝腎, 惡惡無雙也. 人之額臆臍腹, 邪心無雙也, 人之頭肩腰臀, 怠心無雙也.”

15)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肺部位, 在顛下背上, 胃脘部位, 在領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 在膂, 胃部, 在膈, 故膂膈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腸部位, 在臍, 故腰臍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臍腹下, 故脊下臍下以下, 謂之下焦.”

고 인도되어 평담하게 되어서 량기가 된다. 열기의 가볍고 맑은 것은 위완에 올라가 온기가 되고, 량기의 탁하고 무거운 것은 대장에 내려가 한기가 된다”¹⁶⁾라고 하여, 인체의 부(腑)를 위완·위·소장·대장의 네 가지로 나누고, 그 각각에서 수곡의 열기·온기·량기·한기가 생성됨을 논하고 있다.

수곡의 온기는 폐·위완의 상초에 흐르는 기이고, 열기는 비·위의 중상초에 흐르는 기, 량기는 간·소장의 중하초에 흐르는 기, 한기는 신·대장의 하초에 흐르는 기로 밝히고 있다.

사상의학의 생리와 병리에서는 기 흐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단론」에서는 폐비간신을 직접 폐기(肺氣)·비기(脾氣)·간기(肝氣)·신기(腎氣)라 하고¹⁷⁾, 또 “폐로써 내쉬고 간으로 들어쉬니 간과 폐는 기액을 호흡하는 문호이며, 비로써 받아들이고 신으로써 내보내니 신과 비는 수곡을 출납하는 창고이다”¹⁸⁾라고 하여, 기액(氣液)과 수곡(水穀)을 주관하는 기로 논하고 있다면, 「장부론」에서는 인체의 생리적 생명성과 직접 관련된 수곡의 온기·열기·량기·한기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단론」에서는 심성론적 입장에서 호연지기(浩然之氣)와 애기·노기·회기·락기를¹⁹⁾ 논하고, 폐기·비기·간기·신기도 생리적 기에 국한하지 않고 심관(心官)의 입장에서 밝히고 있다.²⁰⁾

이에 「사단론」의 폐기·비기·간기·신기와 「장부론」에서 논한 수곡의 온기·열기·량기·한기의 상관성을 고찰해보면, 먼저 폐기는 수곡의 온기와 결부되는데²¹⁾ 폐기가 곧게 퍼지는 것은 수곡의 열기에서 가볍고 맑은 것이 위로 올라가 온기가 된 것과 서로 통하며, 비기는 열기와 결부되는 것으로 비기가 엄숙하고 감싸는 것은 열기의 확산되어 감싸는

16)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水穀, 自胃脘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腸, 自小腸而入于大腸, 自大腸而出于肛門者, 水穀之都數, 停畜於胃而薰蒸爲熱氣, 消導於小腸而平淡爲涼氣, 熱氣之輕清者, 上升於胃脘而爲溫氣, 涼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而爲寒氣.”

17)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肺氣直而伸, 脾氣栗而包, 肝氣寬而緩, 腎氣溫而畜.”

18)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肺以呼, 肝以吸,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

19)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20) 「사단론」의 哀氣·怒氣·喜氣·樂氣와 肺氣·脾氣·肝氣·腎氣의 의미에 대하여는 임병학의 앞의 논문 (2014c) 참조.

21) 哀怒喜樂과 肺脾肝腎에서 哀와 肺·怒와 脾·喜와 肝·樂과 腎이 결부되며, 水穀의 溫氣는 上焦인 肺黨에 해당되기 때문에 肺氣와 결부되고, 같은 논리로 熱氣는 脾氣, 涼氣는 肝氣, 寒氣는 腎氣와 각각 결부됨을 알 수 있다.

것과 서로 통한다.

또 간기는 수곡의 량기와 결부되는 것으로 간기가 너그럽고 느슨한 것은 량기가 소장에서 소화되고 인도되어 이루지는 것과 서로 통하며, 신기는 수곡의 한기와 결부되는 것으로 신기가 온화하고 쌓이는 것은 량기에서 무겁고 탁한 것이 내려가서 한기가 되는 것과 서로 통하는 것이다.

또한 사상인의 애노희락과 장국 대소의 관계를 통해 온기·열기·량기·한기를 고찰해보면, 먼저 태음인(太陰人)은 희성락정(喜性樂情)이니 량기와 한기가 기본 작용이 되며, 장국은 간대폐소(肝大肺小)니 량기가 크고 온기가 작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소음인(少陰人)은 낙성희정(樂性喜情)이니 한기와 량기가 기본 작용이 되며, 장국은 신대비소(腎大脾小)니 한기가 크고 열기가 작은 것이다. 또 소양인(少陽人)은 노성애정(怒性哀情)이니 열기와 온기가 기본 작용이 되며, 장국은 비대신소(脾大腎小)니 열기가 크고 한기가 작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양인(太陽人)은 애성노정(哀性怒情)이니 온기와 열기가 기본 작용이 되며, 장국은 폐대간소(肺大肝小)니 온기가 크고 량기가 작음을 알 수 있다.²²⁾

「장부론」에서 밝히고 있는 수곡의 온기·열기·량기·한기의 기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장부론」에서는 “위완은 입·코와 통하여 수곡지기가 상승하며, 대장은 항문과 통하여 수곡지기가 하강하며, 위는 그 체가 광대하여 포용하니 수곡지기가 머물러 쌓이며, 소장은 그 체가 좁고 굴곡하니 수곡지기가 소화되고 인도된다”²³⁾라고 하여, 위완·위·소장·대장의 사부의 형상과 작용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장부론」에서는 앞의 「성명론」과 「사단론」 그리고 「확충론」의 사상적 구조를 이어서 인체를 상초·중상초·중하초·하초로 구분하고, 부는 위완·위·소장·대장의 사부로, 또 사부에서 출발되는 수곡의 기운을 온기·열기·량기·한기로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이를 통해 四象人의 藥性이 太陰人은 溫氣, 少陰人은 熱氣, 少陽人은 寒氣, 太陽人은 涼氣를 복돋우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3)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胃脘通於口鼻, 故水穀之氣上升也, 大腸通於肛門, 故水穀之氣下降也, 胃之體, 廣大而包容, 故水穀之氣停畜也, 小腸之體, 狹窄而屈曲, 故水穀之氣消導也.”

Ⅲ. 문왕팔괘도와 온기·열기·량기·한기의 기 흐름

「장부론」에서 논하고 있는 온기·열기·량기·한기의 기 흐름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문왕팔괘도와 「성명론」의 천인성명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서론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무는 ‘동무자주(東武自註)’로 불리는 『동무유고』 제3권 「성명론」에서 천기(天機) 유사(有四)를 직접 문왕팔괘도의 방위와 괘에 배치하여, ‘지방은 서방 태괘(兌卦, ☱)·인륜은 북방 감괘(坎卦, ☵)·세회는 동방 진괘(震卦, ☳)[원문에는 손괘(巽卦, ☴)라고 하였으나 방위와 괘가 다름]²⁴⁾·천시는 남방 이괘(離卦, ☲)’²⁵⁾로 설명하고 있으며, 『격치고』 「유략」에서는 문왕팔괘도에 인간 본성의 이치가 혼연하다고 하였다.²⁶⁾

또 「사단론」에서는 “오장의 마음은 중앙의 태극이고, 오장의 폐비간신은 네 모퉁이의 사상이다”²⁷⁾라고 하여, 폐비간신이 문왕팔괘도의 네 모퉁이에 배치됨을 밝히고 있다.²⁸⁾

따라서 『동무유고』를 근거로 하면, 천기 유사를 담지하는 이목비구는 네 정방으로 이(耳)는 이괘(☱)·목(目)은 진괘(☳)·비(鼻)는 감괘(☵)·구(口)는 태괘(☲)에 각각 배치되고, 「사단론」에서 논하고 있는 폐비간신은 네 모퉁이로 폐는 손괘(☴)·비는 간괘(☶)·간은 건괘(☰)·신은 곤괘(☷)에 각각 배치되는 것이다.²⁹⁾

또 문왕팔괘도에서는 이목비구와 짝이 되는 함역제복은 네 정방에

24) 이창일은 『東武遺稿：東武 李濟馬가 남긴 글』에서 ‘그 방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文王八卦方位之圖의 배열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東方을 巽卦라 하여 文王八卦圖와 정확히 부합하지 않지만 東南도 대체로 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文王八卦圖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李濟馬 저, 이창일 역주, 『東武遺稿：東武 李濟馬가 남긴 글』(청계, 1999), 339쪽.

25) 『東武遺稿』, 제3권 「性命論」. “地方, 卽少陰兌上絶, 西方也. 人倫, 卽太陰坎中連, 北方也. [...] 世會, 卽少陽巽下絶, 東方也. (震下連) 天時, 卽太陽离虛中, 南方也.”

26) 『格致彙』, 「儒略」, 天時. “盡其心者, 知其性, 盡其心者, 無窮用意也, 知其性者, 盡得性理也, 性理者, 文王易象, 渾然全備於吾之知覺中, 曰盡性.”

27)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28) 홍순용·이을호, 『사상의학원론』(행림출판, 1976), 39쪽. 『동무유고』와 『격치고』에서 文王八卦圖를 직접 논하고, 또 『동의수세보원』의 「四端論」과 「臟腑論」의 내용을 통해 文王八卦圖가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29) 文王八卦圖와 耳目鼻口·肺脾肝腎의 관계를 배치하면 다음과 같다. 임병학, 앞의 논문(2014d), 2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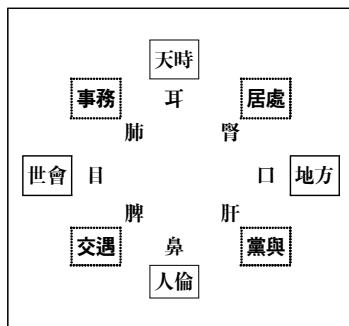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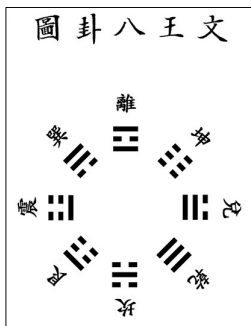
배치되고, 폐비간신과 짝이 되는 두견요둔은 네 모퉁이에 배치되기 때문에 함(顙)은 이괘(☲)·억(臆)은 진괘(☳)·제(臍)는 감괘(☶)·복(腹)은 태괘(☱)에 각각 배치되고, 두(頭)는 손괘(☱)·견(肩)은 간괘(☲)·요(腰)는 건괘(☰)·둔(臀)은 곤괘(☷)에 각각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왕팔괘도와 천인성명의 배치를 기본으로 「장부론」에서 논하고 있는 수곡의 온기·열기·량기·한기의 기 흐름을 문왕팔괘도에 배치하여 그림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수곡의 온기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온기의 기 흐름이 위완에서 시작하여 설하(舌下, 津海) → 이(耳) → 두뇌(頭腦, 賦海) → 폐의 순서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수곡의 온기가 위완으로부터 진(津)으로 변화하여 혀의 아래(舌下)로 들어가 진해가 되니, 진해는 진이 있는 곳이다. 진해의 청기가 이에서 나와 신(神)이 되고 두뇌에 들어가 니해(賦海)가 되니, 니해는 신이 있는 곳이다. 니해의 니즙(賦汁)이 맑은 것은 안으로 폐에 돌아가고 흐린 찌꺼기(濁滓)는 밖으로 피부와 털(皮毛)에 돌아가므로 위완·설·이·두뇌·피모는 모두 폐의 무리(肺黨)다.³⁰⁾

또 마지막 폐의 작용에 대하여 “폐는 사무를 단련하고 통달하는 애(哀)의 힘으로 니해의 맑은 즙을 빨아내어 폐에 들어가 폐의 근원을 더해주고, 안으로는 진해를 옹호하여 수곡의 온기를 고동시킴으로써 그 진을 엉겨 모이게 한다”³¹⁾라고 하여, 폐에서 다시 진해를 담고 있는 설하로 돌아간



30)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賦海, 賦海者, 神之所舍也, 賦海之賦汁清者, 內歸于肺, 濁滓外歸于皮毛, 故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31)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肺以鍊達事務之衰力, 吸得賦海之清汁, 入于肺, 以滋肺元而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

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곡의 온기는 이와 폐가 배치된 이괘(☱)의 남방과 손괘(☲)의 동남방에 위치하며, 위원에서 시작하여 설하(津海) → 이 → 두뇌(臑海) → 폐 → 설하로 순환하는 기 흐름도가 그러지게 된다(아래 그림 1-①).

다음으로 수곡의 열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위에서 시작하여 양유(兩乳, 膏海) → 목(目) → 배려(背膂, 膜海) → 비(脾)의 순서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수곡의 열기가 위로부터 고(膏)로 변화하여 두 젖(兩乳) 사이로 들어가 고해(膏海)가 되니, 고해는 고가 있는 곳이다. 고해의 청기가 목(目)에서 나와 기(氣)가 되고 배려에 들어가 막해(膜海)가 되니, 막해는 기가 있는 곳이다. 막해의 막즙이 맑은 것은 안으로 비(脾)에 들어가고 탁재는 밖으로 근육(筋)에 돌아가므로 위·양유·목·배려·근은 모두 비의 무리(脾黨)다.³²⁾

또 마지막 비의 작용에 대하여 “비는 교우를 단련하고 통달하는 노(怒)의 힘으로 막해의 맑은 즙을 빨아내어 비에 들어가 비의 근원을 더해주고, 안으로는 고해를 옹호하여 수곡의 열기를 고동시킴으로써 그 고를 영겨 모아게 한다”³³⁾라고 하여, 비에서 다시 고해를 담고 있는 양유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곡의 열기는 목(目)과 비(脾)가 배치된 진괘(☳)의 동방과 간괘(☲)의 동북방에 위치하며, 위에서 시작하여 양유(膏海) → 목 → 배려(膜海) → 비 → 양유로 순환하는 기 흐름도가 그러지게 된다(아래 그림 1-②).

이어서 수곡의 량기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하여, 소장에서 시작하여 제(臍, 油海) → 비(鼻) → 요척(腰脊, 血海) → 간(肝)의 순서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수곡의 량기가 소장으로부터 유(油)로 변화하여 배꼽(臍)에 들어가 유해가 되니, 유해는 유가 있는 곳이다. 유해의 청기가 비(鼻)로 나와 혈이 되고 요척에 들어가

32)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水穀熱氣, 自胃而化膏, 入于臆間兩乳爲膏海, 膏海者, 膏之所舍也, 膏海之清氣, 出于目而爲氣, 入于背膂而爲膜海, 膜海者, 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清者, 內歸于脾, 濁滓外歸于筋, 故胃與兩乳目背膂筋, 皆脾之黨也.”

33)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脾以鍊達交遇之怒力, 吸得膜海之清汁, 入于脾, 以滋脾元而內以擁護膏海, 鼓動其氣, 凝聚其膏.”

혈해(血海)가 되니, 혈해는 혈이 있는 곳이다. 혈해의 혈즙이 맑은 것은 안으로 간(肝)에 들어가고 탁재는 밖으로 살(肉)에 돌아가므로 소장·제·비·요척·육은 모두 간의 무리(肝黨)다.³⁴⁾

또 마지막 간의 작용에 대하여 “간은 당역을 단련하고 통달하는 희(喜)의 힘으로 혈해의 맑은 즙을 빨아내어 간에 들어가 간의 근원을 더해주고, 안으로는 유해를 옹호하여 수곡의 량기를 고동시킴으로써 그 유를 영겨 모이게 한다”³⁵⁾라고 하여, 간에서 다시 유해를 담고 있는 제(臍)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곡의 량기는 비(鼻)와 간(肝)이 배치된 감괘(☶)의 북방과 건괘(☳)의 서북방에 위치하며, 소장에서 시작하여 제(油海) → 비 → 요척(血海) → 간 → 제로 순환하는 기 흐름도가 그려지게 된다.(아래 그림 1-㉓).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을 통해 수곡의 한기는 대장에서 시작하여 전음(前陰, 液海) → 구(口) → 방광(膀胱, 精海) → 신(腎)의 순서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수곡의 한기가 대장에서부터 액(液)으로 변화하여 전음(前陰)의 털 사이 속으로 들어가서 액해가 되니, 액해란 것은 액이 있는 곳이다. 액해의 청기가 구(口)로 나와 정(精)이 되고 방광에 들어가 정해(精海)가 되니, 정해는 정이 있는 곳이다. 정해의 정즙이 맑은 것은 안으로 신(腎)에 들어가고 탁재는 밖으로 뼈(骨)에 돌아가므로 대장·전음·구·방광·골은 모두 신의 무리(腎黨)다.³⁶⁾

또 마지막 신의 작용에 대하여 “신은 거처를 단련하고 통달하는 락(樂)의 힘으로 정해의 맑은 즙을 빨아내어 신에 들어가 신의 근원을 더해주고, 안으로는 액해를 옹호하여 수곡의 한기를 고동시킴으로써 그 액을 영겨 모이게 한다”³⁷⁾라고 하여, 신에서 다시 액해를 담고 있는 전음으로 돌아간

34)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水穀涼氣, 自小腸而化油, 入于臍爲油海, 油海者, 油之所舍也, 油海之清氣, 出于鼻而爲血, 入于腰脊而爲血海, 血海者, 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清者, 內歸于肝, 濁滓外歸于肉, 故小腸與臍鼻腰脊肉, 皆肝之黨也.”

35)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肝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清汁, 入于肝, 以滋肝元而內以擁護油海, 鼓動其氣, 凝聚其油.”

36)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水穀寒氣, 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爲液海, 液海者, 液之所舍也, 液海之清氣, 出于口而爲精, 入于膀胱而爲精海, 精海者, 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清者, 內歸于腎, 濁滓外歸于骨, 故大腸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黨也.”

37)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腎以鍊達居處之樂力, 吸得精海之清汁, 入于腎, 以滋腎元

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곡의 한기는 구(口)와 신(腎)이 배치된 태괘(☵)의 서방과 곤괘(☶)의 서남방에 위치하며, 대장에서 시작하여 전음(液海) → 구 → 방광(精海) → 신 → 전음으로 순환하는 기 흐름도가 그려지게 된다(아래 그림 1-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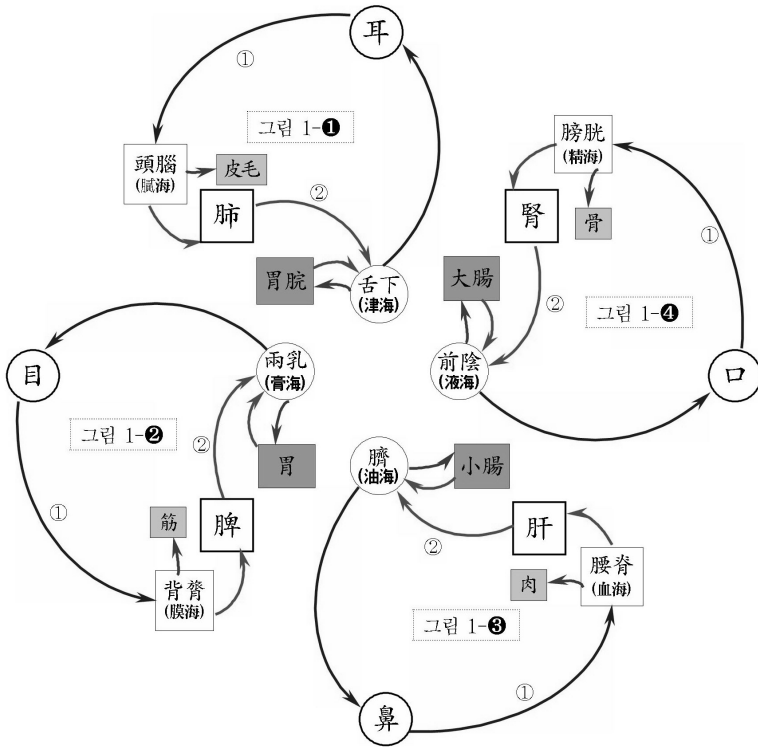


그림1-「장부론」 기 흐름도

위의 그림에 대하여 설명하면,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목비구와 설하(頤)·양유(臆)·제·전음(腹)은 네 정방에 배치되고, 폐비간신과 두뇌(頭)·배려(肩)·요척(腰)·방광(腎)은 네 모퉁이(維方)에 배치되어 있다.

네 정방에 배치되는 이목비구와 설하·양유·제·전음은 서로 체용의

而內以擁護液海，鼓動其氣，凝聚其液。”

관계로 이목비구가 천기를 담지하는 근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밖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설하·양유·제·전음은 인체의 전면에 위치하여 몸을 앞으로 구부릴 때 한곳으로 보이는 굴신작용에 따라 가운데로 모았다.

네 모퉁이에 배치되는 폐비간신과 두뇌·배려·요척·방광의 위치는 「장부론」에서 논하고 있는 수곡의 온기·열기·량기·한기의 기 흐름에 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안과 밖으로 구분한 것이다.

또 위완·위·소장·대장과 피모·근·육·골의 배치는 폐비간신과 같이 현상적 생명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모퉁이에 배치하였으며, 설하·양유·제·전음에서 위완·위·소장·대장으로 돌아가는 방향과 두뇌·배려·요척·방광에서 피모·근·육·골로 가는 것은 탁재의 흐름이다.

또한 위의 그림에서 정방은 하늘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원(○)으로 표시하였고, 그 작용은 음양작용이기 때문에 이목비구와 설하·양유·제·전음을 배치하였다. 또 모퉁이는 땅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방(□)으로 표시하였고, 그 작용은 사상작용이기 때문에 폐비간신, 두뇌·배려·요척·방광, 위완·위·소장·대장, 피모·근·육·골을 배치하였다.³⁸⁾

다음 장에서는 위 인용문들에서 논의된 니해·막해·혈해·정해와 진해·고해·유해·액해의 청기(淸汁), 피모·근·육·골의 탁재를 사상인에 결부시켜 고찰해보고자 한다.

IV. 사상인의 청기(淸즙)와 탁재

이 장에서는 「장부론」에서 논한 인간의 생리적 생명성인 청기(淸즙)와 탁재를³⁹⁾ 사상인에 결부시켜 고찰해보고자 한다.

38) 동양에서는 '天圓地方'이라 하여, 天道는 시간의 세계로 둥근 圓으로 표상되고, 地道는 공간의 세계로 네모난 方으로 표상된다. 동양철학에서 方圓의 의미는 林炳學·곽우철의 「『주역』의 河圖洛書論과 方圓의 역학적 의미」(『동서철학연구』 제74호, 한국동서철학회, 2014) 참조.

39) 인간의 생리적 생명성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로 이해되는데, 정신적 생명은 淸氣(淸汁)로, 물질적 생명은 濁滓로 논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淸氣를 汁과 海로 논하여 물과 관련됨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하늘의 뜻 내지 작용성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먼저 「장부론」에서는 이목비구와 청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耳)는 천시를 널리 듣는 힘으로 진해의 맑은 기운을 끌어내어 상초에 가득 차게 하여 신(神)이 되게 하고, 두뇌에 쏟아 넣어서 니(膩)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니해가 된다. 목(目)은 세회를 널리 보는 힘으로 고해의 맑은 기운을 끌어내어 중상초에 가득 차게 하여 기(氣)가 되게 하고, 배려에 쏟아 넣어서 막(膜)이 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막해가 된다. 비(鼻)는 인륵을 널리 냄새 맡는 힘으로 유해의 맑은 기운을 끌어내어 중하초에 가득 차게 하여 혈(血)이 되게 하고, 허리에 쏟아 넣어서 혈이 엉기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혈해가 된다. 구(口)는 지방을 널리 맛보는 힘으로 액해의 맑은 기운을 끌어내어 하초에 가득 차게 하여 정(精)이 되게 하고, 방광에 쏟아 넣어서 정이 엉기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정해가 된다.⁴⁰⁾

즉, 천기 유사를 널리 하는 이목비구의 청시후미(聽視嗅味)하는 힘에 의해 진해·고해·유해·액해에서 청기를 끌어내고, 이것을 사초에 가득 차게 하여 신기혈정(神氣血精)을 생성하고, 신기혈정이 두뇌·배려·요척·방광으로 주입되어 니해·막해·혈해·정해의 사해가 됨을 논하고 있다.

사상인과 니해·막해·혈해·정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충론」에서 논한 사상인의 이목비구의 잘함(能)과 잘하지 못함(不能)을 근거로 해야 한다.

즉, “태양의 이는 능히 천시에 넓고, 태양의 비는 인륵에 넓지 못한다. 태음의 비는 능히 인륵에 넓고, 태음의 이는 천시에 넓지 못한다. 소양의 목은 능히 세회에 넓고, 소양의 구는 지방에 넓지 못한다. 소음의 구는 능히 지방에 넓고 소음의 목은 세회에 넓지 못한다.”⁴¹⁾라고 하여, 사상인의 이목비구(性氣)를 중심으로 장리(臟理)의 대소에 따라 대는 잘함·소는

것이다.

40)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耳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清氣, 充滿於上焦, 爲神而注之頭腦, 爲膩積累爲膩海. 目以廣博世會之視力, 提出膏海之清氣, 充滿於中上焦, 爲氣而注之背脊, 爲膜積累爲膜海. 鼻以廣博人倫之嗅力 提出油海之清氣, 充滿於中下焦, 爲血而注之腰脊, 爲凝血積累爲血海. 口以廣博地方之味力, 提出液海之清氣, 充滿於下焦, 爲精而注之膀胱, 爲凝精積累爲精海.”

41)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而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太陰之鼻, 能廣博於人倫而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 少陽之目, 能廣博於世會而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而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

잘하지 못함으로 논하고 있다.

「확충론」을 근거로 보면, 태양인은 니(膩)는 잘되게 하지만 혈(血)은 잘 영기게 하지 못하고, 태음인은 혈은 잘 영기게 하지만 니(膩)는 잘 되지 못하고, 소양인은 막(膜)은 잘되게 하지만 정(精)은 잘 영기게 하지 못하고, 소음인은 정은 잘 영기게 하지만 막은 잘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양인은 폐대간소로 니해는 크지만 혈해는 작고, 태음인은 간대폐소로 혈해는 크지만 니해는 작고, 소양인은 비대신소로 막해는 크지만 정해는 작고, 소음인은 신대비소로 정해는 크지만 막해는 작다고 하겠다.

또 「장부론」에서는 ‘이목비구의 청시후미하는 작용이 깊고·멀고·넓고·크면 인체의 정신기혈을 생성하지만, 만일 너무 가깝고·낮고·좁고·적으면 인체의 정신기혈이 소모된다’⁴²⁾고 하여, 이목비구에 의해 생성되는 정신기혈이 수곡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근원이 됨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폐비간신과 청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폐는 사무를 단련하고 통달하는 애(哀)의 힘으로 니해의 맑은 즙을 빨아내어 폐에 들어가 폐의 근원을 더해주고, 안으로는 진해를 옹호하여 수곡의 온기를 고동시킴으로써 그 진(津)을 영겨 모이게 한다. 비는 교우를 단련하고 통달하는 노(怒)의 힘으로 막해의 맑은 즙을 빨아내어 비에 들어가 비의 근원을 더해주고, 안으로는 고해를 옹호하여 수곡의 열기를 고동시킴으로써 그 고(膏)를 영겨 모이게 한다. 간은 당여를 단련하고 통달하는 희(喜)의 힘으로 혈해의 맑은 즙을 빨아내어 간에 들어가 간의 근원을 더해주고, 안으로는 유해를 옹호하여 수곡의 량기를 고동시킴으로써 그 유(油)를 영겨 모이게 한다. 신은 거처를 단련하고 통달하는 락(樂)의 힘으로 정해의 맑은 즙을 빨아내어 신에 들어가 신의 근원을 더해주고, 안으로는 액해를 옹호하여 수곡의 한기를 고동시킴으로써 그 액을 영겨 모이게 한다.⁴³⁾

42)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是故, 耳必遠聽, 目必大視, 鼻必廣嗅, 口必深味. 耳目鼻口之用, 深遠廣大則精神氣血, 生也, 淺近狹小則精神氣血, 耗也.”

43)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肺以鍊達事務之哀力, 吸得膩海之清汁, 入于肺, 以滋肺元而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 脾以鍊達交遇之怒力, 吸得膜海之清汁, 入于脾, 以滋脾元而內以擁護膏海, 鼓動其氣, 凝聚其膏. 肝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清汁, 入于肝, 以滋肝元而內以擁護油海, 鼓動其氣, 凝聚其油. 腎以鍊達居處之樂力, 吸得精海之清汁, 入于腎, 以滋腎元而內以擁護液海, 鼓動其氣, 凝聚其液.”

즉, 인사 유사를 단련하고 통달하는 폐비간신의 애노희락하는 힘이
니해·막해·혈해·정해의 청즙을 빨아내어 폐비간신의 근원을 더해
주고, 진해·고해·유해·액해가 엉겨 모이게 됨을 논하고 있다.

또 사상인과 진해·고해·유해·액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충론」에서 논한 사상인의 폐비간신의 잘함과 잘하지 못함을 근거로
해야 한다.

즉, “태양의 비는 능히 교우를 용감하게 통솔하고, 태양의 간은 당여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 소음의 간은 능히 당여를 바로 세우고, 소음의
비는 교우를 힘 있게 통솔하지 못한다. 소양의 폐는 능히 사무에 민첩하게
통달하고, 소양의 신은 거처에 항상 안정하지 못한다. 태음의 신은 능히
거처에 항상 안정하고, 태음의 폐는 사무에 민첩하게 통달하지 못한다”⁴⁴⁾
라고 하여, 사상인의 폐비간신(情氣)을 중심으로 촉급한 장국은 잘하고,
소한 장국은 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확충론」을 근거로 보면, 태양인은 고해는 잘 엉겨 모이지만 유해는
잘 엉겨 모이지 못하고, 태음인은 액해는 잘 엉겨 모이지만 진해는
잘 엉겨 모이지 못하고, 소양인은 진해는 잘 엉겨 모이지만 액해는
잘 엉겨 모이지 못하고, 소음인은 유해는 잘 엉겨 모이지만 고해는
잘 엉겨 모이지 못하는 것이다.

또 「장부론」에서는 ‘폐비간신의 학문사변(學問思辨)이 바르고·곧고·
적중하고·조화되면 진해·고해·유해·액해가 충만하고, 치우치고·
기울고·지나치고·미치지 못하면 진해·고해·유해·액해가 사라진
다’⁴⁵⁾고 하여, 폐비간신의 인(人事)과 학문사변의 심사단(心四端)을 결부
시킴으로써⁴⁶⁾ 폐비간신의 작용이 인격적 작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부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양유·제·전음의 진해·고
해·유해·액해가 이목비구의 근본이라 하고, 두뇌·배려·요척·방광

44)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而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而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而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45)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是故, 耳必遠聽, 目必大視, 鼻必廣嗅, 口必深味. 耳目鼻口之用, 深遠廣大則精神氣血, 生也, 淺近狹小則精神氣血, 耗也. 肺必善學, 脾必善問, 肝必善思, 腎必善辨. 肺脾肝腎之用, 正直中和則津液膏油, 充也, 偏倚過不及則津液膏油, 燼也.”

46) 『동의수세보원』의 天人性命과 『격치고』의 事心身物의 관계에서 人과 心四端이 연계됨을 알 수 있다.

의 니해·막해·혈해·정해가 폐비간신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혀의 진해는 이의 근본이고, 젓의 고해는 목의 근본이고, 배꼽의 유해는 비의 근본이고, 전음의 액해는 구의 근본이다.⁴⁷⁾

뇌의 니해는 폐의 근본이고, 등의 막해는 비의 근본이고, 허리의 혈해는 간의 근본이고, 방광의 정해는 신의 근본이다.⁴⁸⁾

앞에서 이목비구의 청시후미하는 힘에 의해 니해·막해·혈해·정해를 축적하고, 폐비간신의 애노희락하는 힘에 의해 진해·고해·유해·액해를 영겨 모이게 하기 때문에 이목비구의 근원이 폐비간신에 있고, 폐비간신의 근원이 이목비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인체를 통해 구현되는 천인(天人)관계의 철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목비구와 폐비간신이 서로 체용의 관계로 인체의 기 흐름이 순환되기 때문에 인체는 하늘(天)과 인간(人)이 합일되는 장이자, 그 이치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곡의 기 순환은 이목비구의 청시후미하는 작용에 의해 신기혈정을 생성시켜 니해·막해·혈해·정해를 쌓이게 할 수도 있고 소모시킬 수도 있으며, 또 폐비간신의 애노희락하는 작용에 의해 진·고·유·액이 증만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천기 유사를 담지한 이목비구와 진해·고해·유해·액해를 근본으로 하는 이목비구는 하나의 이목비구이지만, 전자는 인격적 심관(心官)으로⁴⁹⁾ 마음의 작용을 위주로 논한 것이라면, 후자는 인체의 생리적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⁰⁾ 마찬가지로 인사 유사를 담지한 폐비간신과 니해·막해·혈해·정해를 근본으로 하는 폐비간신은 하나의 폐비간신이지만, 전자는 인격적 심관으로 마음의 작용을 위주

47)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舌之津海, 耳之根本也, 乳之膏海, 目之根本也, 臍之油海, 鼻之根本也, 前陰之液海, 口之根本也.”

48)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頭腦之臑海, 肺之根本也, 背膂之膜海, 脾之根本也, 腰脊之血海, 肝之根本也, 膀胱之精海, 腎之根本也.”

49)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額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腎 行其行也.”

50) 耳目鼻口가 가지는 뜻은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논리적으로는 구분하지만, 실제적인 현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것과 같다. 四象의 사유체계의 내부 구조인 耳目鼻口, 肺脾肝腎, 額臆臍腹, 頭肩腰腎 등은 단순한 생리적 인체만이 아닌 정신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기능을 가진 인체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로 논한 것이라면, 후자는 인체의 생리적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목비구와 폐비간신이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를 통해 인체가 형이상과 형이하를 일관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니해·막해·혈해·정해를 신령혼백(神靈魂魄)과 연계시켜⁵¹⁾ 이목비구가 생하는 신기혈정은 신령혼백의 인격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진해·고해·유해·액해를 물사단(物四端)인 의려조지(意慮操志)와 연계 시킴⁵²⁾으로써 천인성명(天人性命)과 사심신물(事心身物)의 관계에서 함역제복의 성이 물사단과 결부됨을 알 수 있다.

즉, 이목비구에서 축적되는 니해·막해·혈해·정해와 폐비간신에서 영겨 모이게 되는 진해·고해·유해·액해가 생리적 청기와 청즙이지만, 그 속에는 신령혼백과 의려담지의 인격적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성이 인격성(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진해·고해·유해·액해의 탁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진해의 탁한 찌꺼기는 위완이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 그 탁한 찌꺼기를 취하여 위완을 보익해주고, 고해의 탁한 찌꺼기는 위가 머물러 쌓는 힘으로 그 탁한 찌꺼기를 취하여 위를 보익해주고, 유해의 탁한 찌꺼기는 소장(小腸)이 소화시켜 내려보내는 힘으로 그 탁한 찌꺼기를 취하여 소장을 보익해주고, 액해의 탁한 찌꺼기는 대장(大腸)이 아래로 내려보내는 힘으로 그 탁한 찌꺼기를 취하여 대장을 보익해준다.⁵³⁾

진해·고해·유해·액해의 탁재가 위완·위·소장·대장을 보익한다고 하였다. 즉, 설하·양유·제·전음의 탁재를 위완·위·소장·대장이 스스로 취해서 자기를 보익함을 알 수 있다.

설하·양유·제·전음에 있는 진해·고해·유해·액해의 청기는 이목비구의 근본이 되고, 탁재는 위완·위·소장·대장을 보익한다는 것은 천인성명의 사상적 구조에서 이목비구(天)와 함역제복(舌下·兩乳·臍·前陰, 性)의 체용관계와 일치하고 있다.⁵⁴⁾

51)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賦海藏神, 膜海藏靈, 血海藏魂, 精海藏魄.”

52)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津海藏意, 膏海藏慮, 油海藏操, 液海藏志.”

53)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津海之濁滓則胃脘, 以上升之力, 取其濁滓而以補益胃脘. 膏海之濁滓則胃, 以停畜之力, 取其濁滓而以補益胃. 油海之濁滓則小腸, 以消導之力, 取其濁滓而以補益小腸. 液海之濁滓則大腸, 以下降之力, 取其濁滓而以補益大腸.”

54) 임병학, 「동무 이체마의 四象의 사유체계와 『맹자』,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3호(경

또한 사상인의 이목비구를 중심으로 천기 유사의 잘함과 잘하지 못함을 논한 「확충론」을 근거로 사상인의 탁재에 대하여 고찰하면, 태양인은 진해는 잘 끌어내지만 유해는 잘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위완은 잘 보익하지만 소장은 잘 보익하지 못하고, 태음인은 유해는 잘 끌어내지만 진해는 잘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장은 잘 보익하지만 위완은 잘 보익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양인은 고해는 잘 끌어내지만 액해는 잘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위는 잘 보익하지만 대장은 잘 보익하지 못하고, 소음인은 액해는 잘 끌어내지만 고해는 잘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장은 잘 보익하지만 위는 잘 보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니해·막해·혈해·정해의 탁재에 대하여 인체를 구성하는 피부와 터럭·힘줄·살·뼈가 니해·막해·혈해·정해의 탁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니해의 탁한 찌꺼기는 머리가 곧게 펴는 힘으로 단련하여 피부와 털을 이루게 하고, 막해의 탁한 찌꺼기는 손이 능히 거두는 힘으로 단련하여 힘줄(筋)을 이루게 하고, 혈해의 탁한 찌꺼기는 허리가 너그럽게 놓아주는 힘으로 단련하여 살(肉)을 이루게 하고, 정해의 탁한 찌꺼기는 발이 구부리는 강한 힘으로 단련하여 뼈(骨)를 이루게 한다.⁵⁵⁾

두뇌·배려·요척·방광에 있는 니해·막해·혈해·정해의 청즙은 폐비간신의 근본이 되고, 탁재는 두수요족에 의해 피모·근·육·골이 된다는 것은 「성명론」의 천인성명의 사상적 구조에서 폐비간신(人)과 두견요둔(命)의 체용관계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사상인의 폐비간신을 중심으로 인사 유사의 잘함과 잘하지 못함을 논한 「확충론」을 근거로 사상인의 탁재를 고찰하면, 먼저 태양인은 막해는 잘 빨아내지만 혈해는 잘 빨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능히 거두는 힘은 잘 단련하지만 허리가 너그럽게 놓아주는 힘은 잘 단련하지 못하고, 태음인은 정해는 잘 빨아내지만 니해는 잘 빨아내지 못하기

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244쪽.

55)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膩海之濁滓則頭, 以直伸之力, 鍛鍊之而成皮毛, 膜海之濁滓則手, 以能收之力, 鍛鍊之而成筋, 血海之濁滓則腰, 以寬放之力, 鍛鍊之而成肉, 精海之濁滓則足, 以屈強之力, 鍛鍊之而成骨.”

때문에 발이 구부리는 강한 힘은 잘 단련하지만 머리가 곧게 펴는 힘은 잘 단련하지 못하는 것이다.⁵⁶⁾

소양인은 니해는 잘 빨아내지만 정해는 잘 빨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곧게 펴는 힘은 잘 단련하지만 발이 구부리는 강한 힘은 잘 단련하지 못하고, 소음인은 혈해는 잘 빨아내지만 막해는 잘 빨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가 너그럽게 놓아주는 힘은 잘 단련하지만 손이 능히 거두는 힘은 잘 단련하지 못하는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문왕팔괘도에 근거하여 「장부론」에서 밝힌 수곡의 온기·열기·량기·한기의 기 흐름과 사상인의 진해·고해·유해·액해와 니해·막해·혈해·정해의 청기(청즙)·탁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장부론」은 앞의 「성명론」, 「사단론」, 「확충론」에서 논한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인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논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의학의 생리와 병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장이다.

「장부론」에 대한 연구는 한의학계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한국 철학계에서 연구된 논문은 찾을 수 없다. 한의학에서는 「장부론」을 연구하는데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규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논하면서도, 장부의 생리적 기능과 기존의 한의학(漢醫學)과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도구)인 문왕팔괘도에 근거하여, 수곡의 온기·열기·량기·한기의 기 흐름을 완성함으로써 인체의 기 흐름을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었다.

56) 여기서 인체를 구성하는 皮毛·筋·肉·骨과 四象인의 직접적인 상관성을 생각해 보면, 피부와 터럭·힘줄·살·뼈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四象인의 체형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운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태음인은 발이 구부리는 강한 힘은 잘 단련하지만 머리가 곧게 펴는 힘은 잘 단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뼈는 잘 이루지만 피부와 털은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뼈가 튼튼하고 대머리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모두 태음인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사상의학의 핵심적 문제인 기 흐름을 단순히 인체의 상하의 작용으로 이해한 것을 넘어서, 문왕팔괘도를 통한 이해는 인체의 생리적 기 흐름을 철학적·원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장부론」에서 논한 진해·고해·유해·액해와 니해·막해·혈해·정해의 청기·탁재를 사상인의 장부에 연계시켜 고찰하면 사상인의 장부의 특징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목비구와 폐비간신이 인격적 심관의 의미와 생리적 기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통해 인체의 생명성이 형이상의 인격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생명성이 단순히 물리적 인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의 인격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통해 사상의학이 인간의 마음과 몸을 하나로 융합한 의학체계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장부론」에 대한 연구를 마지막으로 문왕팔괘도에서 근거한 『동의수세보원』 제1권의 철학적 연구를 일단락하고, 이후에는 사상철학과 사상 의학을 융합하는 '사상철학의 마음 연구'에 대한 주제로 이어갈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孟子』, 『周易』.

李濟馬, 『格致藁』.

_____, 『東武遺稿』.

_____, 『東醫壽世保元』.

李濟馬 지, 이창일 역주, 『東武遺稿: 東武 李濟馬가 남긴 글』 청계, 1999.

임병학, 「동무 이제마의 四象의 사유체계와 『맹자』」.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3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3, 235-264쪽.

_____, 「문왕팔괘도에 근거한 『동의수세보원』 「확충론」의 哀怒喜樂과 天人性命 고찰」. 『민족문화』 제44집, 한국고전번역원, 2014a, 5-35쪽.

_____, 「문왕팔괘도에 근거한 哀怒喜樂과 四象人 臟局의 大小 형성에 관한 고찰- 『동의수세보원』 「사단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72호, 한국동서철학회, 2014b, 63-84쪽.

_____, 「哀怒喜樂에 대한 心理·生理의 해석과 그 易學的 근거 -『동의수세보원』 「사단론」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25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c, 363-387쪽.

_____, 「『周易』의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동의수세보원』 「性命論」의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5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4d, 201-234쪽.

_____, 「朱子の 『易學啓蒙』에 근거한 동무의 易學的 사유의 특성-『격치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6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e, 427-450쪽.

황민우, 『사상의학 강설-병증편』. 군자출판사, 2012.

국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문왕팔괘도(文王八卦圖)에 근거하여 「장부론」에서 밝힌 수곡의 온기(溫氣)·열기(熱氣)·량기(涼氣)·한기(寒氣)의 기 흐름과 사상인(四象人)의 진해(津海)·고해(膏海)·유해(油海)·액해(液海)와 니해(膩海)·막해(膜海)·혈해(血海)·정해(精海)의 청기(淸氣)·탁재(濁滓)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장부론」은 그 명칭에서부터 의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장부론」이 인체의 사상적 구조와 생리적 작용(淸氣·濁滓)을 논하고 있지만, 『동의수세보원』 제1권은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 사고에 의한 인간의 이해를 중심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도구)인 문왕팔괘도에 근거하여, 수곡의 온기·열기·량기·한기의 기 흐름을 완성함으로써 인체의 기 흐름을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었다.

이에 사상의학의 핵심적 문제인 기 흐름을 단순히 인체의 상하의 작용으로 이해한 것을 넘어서, 문왕팔괘도를 통한 이해는 인체의 생리적 기 흐름을 철학적·원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장부론」에서 논한 진해·고해·유해·액해와 니해·막해·혈해·정해의 청기·탁재를 사상인의 장부에 연계시켜 고찰한 결과 사상인의 장부의 특징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목비구와 폐비간신이 인격적 심관(心官)의 의미와 생리적 기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통해 인체의 생명성이 형이상의 인격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생명성이 단순히 물리적 인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의 인격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통해 사상의학이 인간의 마음과 몸을 하나로 융합한 의학체계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투고일 2014. 10. 7.

심사일 2015. 1. 18.

게재 확정일 2015. 2. 10.

주제어(keyword) 동무 이제마(Dongmu Lee Je-ma), 「장부론」(Jangburon), 사상철학(Sasang's philosophy), 청기(淸氣, CheongGi), 탁재(濁滓, Takjae), 문왕팔괘도(the Diagram of King Wen's eight trigram), 사상인(四象人, SasangIn)

Abstracts

A Study about Jangburon's the Flow of Energy and SasangIn's CheongGi · Takjae on the Diagram of King Wen's Eight Erigram: Centering around the Jangburon in *DonguiSuseBowon*

Lim, Byeong-hak

This study is a consideration about the flow of energy(溫氣 · 熱氣 · 涼氣 · 寒氣) and CheongGi(清氣) · Takjae(濁滓) of four-shapes' people that are disclosed in Jangburon(臟腑論) based on the Diagram of King Wen's eight trigram.

Jangburon makes us think it has content medical thing from the title, but chapter 1 of *Donguisusebowon* discussed philosophical principl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o we have to study understanding of person from philosophical thinking, although Jangburon told about four shapes structure and physiological function.

In this study, researcher made a methodology that can understand body's energy flow on the basis of the Diagram of King Wen's eight trigram that is a tool can understand philosophical principl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Understanding through the Diagram of King Wen's eight trigram will be an opportunity not only can understand body's top and bottom function but also can consider body's physiological energy flow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about energy flow, central ques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Through study that Jinhae(津海) · Gohae(膏海) · Yuhae(油海) · Ekhae(液海) and CheongGi(清氣) · Takjae(濁滓) of Nihae(膩海) · Makhae(膜海) · Hyulhae(血海) · Junghae(精海) link to Jangbu of four shapes people, can understand a feature of four shapes people's Jangbu.

Especially, Eyes · Ear · Nose · Mouth and Lungs · Spleen · Liver · Kidney have two means that one is moral Simkuan(心官) another is Physiological organ, so we know clearly human life is based on metaphysical character.

Namely, four shapes medicine is medical system that fusing mind and body through human's life is not only simply physical human body but also based on metaphysical character.